

# 사설

현내면 화진포호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석호이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석호로 유명하다. 화진포호 주변에서 발견된 여러개의 고인돌들은 이곳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곳을 말해 주고 있다. 향토사학자인 김광섭씨에 따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녹을 먹는 관리들과 시인묵객들이 풍경을 즐기던 곳이었다. 수복되기 이전에는 화진포의 성을 김일성이 별장으로 이용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별장을 짓고 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화진포호는 자연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971년 강원도가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하면서부터 주민들이 멀리서만 바라봐야 하는

호수로 전락하고 말았다. 호수와 접해 있는 현내면과 거진읍 주민들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수안에 들어가 미역도 감을 수도 없게 되었다.

벌써 40년째다. 그렇다고 화진포호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하면

## 화진포 규제해제 요구 목소리 들어야

그렇지도 못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인근 하천에서 화진포호수로 유입된 토사로 하상이 높아져, 과거 사람 키를 훨씬 넘었던 호수의 깊이가 현재는 허리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특히 호수 주변 순환도로가 생겨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내면과 거진읍 주민들이 40년간 묶여 있던 규제를 풀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도 더러 규제 해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지

만, 이번처럼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주민들이 40년 동안 참고 있던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최근 화진포호 주변의 개발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주)리솜리조트의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과 현대아산의 관광호텔

신축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런 상황변화에 맞춰 화진포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현재 현내면변영회와 거진읍변영회를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읍면의 변영회와도 연대해 힘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 굵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들고 나서는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먼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순서일 것이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신뢰사회를 만들시다. 修身齊家(수신제가)이라 내 자신의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여 몸과 마음을 修練管理(수련관리; 힘을 기르고 정신을 단련하고 자신의 결점을 다스림), 잘 다스리고 가정을 화평하게 하여 우리 힘에 우리 손으로 우리 사회가 평온 하고, 아니행복(우리흡족 함), 우리 滿足(만족)을 잘 조화하여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함이 현실이고 이상이다.

###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 신뢰사회로 가는 길

信客(신객)이 되려면 信士(일을 믿음성 있게 처리한 사람)와 淑女(숙녀; 맑고 정숙한 믿음의 사람)의 속과 겉이 일치한 人間事(인간사)의 굳은 약속을 지킴으로서 국가 사회의 질서가 유지 될 것이다. 성숙된 민주 시민(우리자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인이 主導者(주도자)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信賴構築(신뢰구축)의 재가치를 인식변화는 믿음의 사회로 변화해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한 길이다. 不信社會(불신사회)의 희생은 누가 무어라 해도, 나를 바보라 해도, 병신이라 해도 柔而立(유이립;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人德)이라, 나만이라도 '신용'을 회생하는 마음.. 행동을... 요즈음 국가사회 분위기가 異象氣候 症候群(이상기후 증후군)으로서 모방 범죄(공짜 폰, 어느 술집 광고 술은 공짜 상술이... 도박 등 사행심조장)형태가 있으니 근절시킬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 아니 계명(너와 나 삼가 훈계로서 스스로 조심)과 腹心(복심; 중앙 중심)으로 人道知行(국가사회는 도덕심을 실행함)하자는 것!

침을 不信辨辨(불신분식; 믿지 않는 마음을 사라지게 함)하는 일도 나의 몫이다. 믿고 진실하고 분명히 의지하고 힘입어 이득 이익 등의 해법이란 것. 이것은 참 의 힘을 發揮(발휘; 펼쳐서 드러냄)하는 분기점에서의 信의 지혜를 십자!

둘째 信賞必罰(신상필벌)도 국민의 몫이다. 천둥 벼락이 떨어져도 지축이 흔들려도 우리의 생각 뜻 행동을 억제해 나아감이 옳은 지혜이다. 신은 생각·행동을 잘 아 바로잡음은 不疑(불의) 아니며 참된 밝힘은 罪之有無(죄지유무; 허물없다)이다. 신은 徵驗(징험; 증거)을 구하는 지혜이란 것. 其中有(기중유; 신은 그 마음 중심에 있다: 老子言) 신에 맡김이요 再宿(재숙; 이를 밤 잤)이라, 신은 도장 찍히고 박함과 같고 歸德(귀덕)과 宿爲食(숙위식진; 자고 먹고)이 再宿爲心(재숙위심; 다시 잤)에 消息(소식; 보도 소리)을 傳令使가 전하는 것과 소문은 자연히 들려온다는 것.

셋째 신·불신도 내가 정할 일이다. 맹자 선지 선각은 盡心下(진심하; 전력을 다

함)라,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죽도록 힘 쓰라는 것. 書則不如無書(서적불여무서; 글 쓰는 법칙을 글 아니면 하지 말라)엔 마음의 뜻을 나아가서 억제하고 행동을 금지하라고 하였다. 신은 升人切(승인절; 고치고 펼침 바로잡다)이다. 往者屈(왕자굴; 가는 자)과 來者(내자; 오는 자)로서 믿음이 분명하는 것이다.

넷째 仁義禮智信(인의예지신)은 즉 五常(오상; 늘 우리 몸에서 떠나서는 아니 될 5가지 지혜)의 도는 王者(왕자;아니;우리)가 마땅히 修飾(수식; 겉모양 꾸밈)해야 할 바이다. 信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요 義는 마땅한 것이요 禮는 새로운 것이요 智는 슬기로우며 신은 정성스러운 것이요 신용사회는 믿음성 있고 진실이 우리 과제이다. 라는 것.

다섯째 불신사회를 회생하는 길이 국민(자치)의 몫이다.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회생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내일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의 일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 즉 信賴感(신뢰감; 믿고 의지하는 감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요체이다.

여섯째 신뢰의 길은 좁은 길이다. 믿음성 신뢰의 이해, 남에게 제자리를 내어준 양보, 겸손하고 사양한 겸양 매우 쉬운 말이나 실행하기 어려운 길이다. 정부정 깨끗함도 諛諂(오류)도 우리 모두의 일이고 과제이다.

일곱째 고통분산 心分無事(심분무사; 마음의 나눔은 아무 일 없다)도 우리 것이요 나눔은 우리인간에게 주어진 신과 악의 조화의 열쇠이다. 바로 신이다.

건강 365를 위하여 하늘이 하사한 대산을 窺知(규지)하지!

症勢 製法用法治療42種중 4個(증세 제법용업치료42종 중4개)를 處方 效能 復用 效果(처방효능복용효과)는 3)鼻出血(비출혈; 코피 흐를 때) 약을 사용해도 맞지 않을 때 사용방법엔 마른 껌질 채 그대로 찌어 천에 쌓아서 왼쪽 비 출혈인 경우 오른쪽 발바닥 가운데 붙인다. 오른쪽 경우 반대쪽에, 방법은 설사와 이질의 경우와 같다. 4)산후 풍기 경련 眩氣症(현기증; 어지러운 증세)으로 언어장애 증엔 마늘 30쪽 물 54리터(3되)부어 1/3로 달여 식전이나 식후 1컵씩 복용함. 5)부인 陰部 搔痒 症(음부소양증; 성기가 가려움증)마늘전체를 끓인 물 식힌 후 씻는다. 6)尿失禁(요실금; 남녀 소변이 흘러 나올 때) 마늘7쪽 濕紙(습지; 물에 젖은 종이)로 싸서 잤물에 구운다음 온수로 식전에 먹는다. 7)명치통(양갈비 중앙에 통증 또는 胃冷痛(위냉통; 위가 차면서 아픔)만든 방법은 마늘 한 쪽을 즙내어 생강즙으로 약간 풀어 복용한다.

#### ◇편집국에서

0...지난 2005년 조성된 토성면 도원3리의 녹차 재배단지가 지난 겨울 한파와 강풍 등으로 올해 새 잎이 돋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 재배로 유명한 보성 등 지에서도 터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도원3리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고성군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원3리가 입지상 녹차 재배단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재배단지를 이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